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“생활물류 새싹기업 맞춤형 지원” 강화 물류 새싹기업 간담회서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강조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(목), 서울 마포구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‘물류 새싹기업 간담회’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.
 -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새싹기업 덕분에 물류산업이 ‘변화와 첨단’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.”라며, “업종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·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.”고 말한다.
-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범 매쉬코리아 사장 등 물류새싹기업 대표들과 인라이트 벤처스 대표 등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해 ‘생활물류 새싹기업 육성방안’에 대해 논의한다.
 - 김 장관은 생활물류 새싹기업은 “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창업과 고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 최우선 정책의 실현에 기여를 하고 있다”며, “창업과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이 필요하다”고 말한다.
 - 한편 물류 새싹기업중에는 이륜차 배송업체도 있는 만큼 “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이륜차 운전자님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새싹기업체의 안전운행 관리도 당부”한다.
- 아울러 김 장관은 “정부에서도 운송수단 규제 완화, 창업자금 지원 등 생활물류 새싹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다”고 강조하면서,
 - “제도를 만드는데 업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한다.

2018. 5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**간담회 개요**

- 시기/장소 : '18.5.10(목) 14:00 / 물류산업진흥재단 회의실(9층, 마포구)
- 참석자 : 총 22명
 - 국토부(6) 장관님, 교통물류실장, 물류정책관
 - * (배석) 물류정책과장(사회), 물류시설정보과장, 공간영상과장
 - 업체 (10) 유정범(매쉬코리아), 김창수(윈더스), 오범석(살기좋은마을), 김슬기(마켓컬리), 장보영(위킵), 이주미(마타컴퍼니), 최승혁(인프로) 등
 - 지원기관(6) 심재선(물류재단 이사장), 민정웅(인하대교수), 정태영(CJ연구소장), 민연주(KOTI 박사), 김용민(인라이트벤처스), 김범준(통합물류협회 전무)
- 주요의제 : 창업 지원, 제도 구축, 기술개발 등 스마트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

□ **시간계획** ☞ 총 1시간 30분 소요

시 간	소요	내 용	비 고
14:00 ~ 14:05	5'	참석자 소개	(사회) 물류정책과장
14:05 ~ 14:10	5'	모두말씀	장관님
14:10 ~ 14:20	10'	주제 발표(스마트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방안)	KOTI 민연주
14:20 ~ 15:10	50'	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	협회장, 기업대표
15:10 ~ 15:20	10'	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	장관님 (물류정책관)
15:20 ~ 15:25	5'	마무리 말씀	장관님
15:25 ~ 15:30	5	기념 촬영	참석자